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자



조 성 희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지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상상하기도 싫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대개의 경우 나오는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나만을 생각하며 나만의 편안함을 좇아 사람들은 점점 개인 개인으로 파편화되어가며 극단적인 이기주의 경향은 강해지고 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들이 신문지상을 뒤덮을 때에도 한 구석을 자리잡은 아름다운 애기의 기사내용은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며,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느끼게 한다. 이러한 기사의 주인공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며, 이들은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밝혀지기를 거부한 채 오늘도 부지런한 몸짓을 계속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활동은 사회연대의 사상에 입각한 상부상조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를 질문하면 대개의 경우 "여유시간에 뭔가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한다.

사회복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왜 '준다'고 할까? '준다'는 말에는 그에 상응하는 유·무형의 대가를 기대하고 행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조건없이 베푸는 자원봉사의 정신과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이념에도 부합되는 '주는 것'이 아닌 '나눔'이 더 합당한 표현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다.

몇 년전부터 사회복지학과 신입생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사회복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를 왜 왔

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 예상 답이 아니기를 항상 기대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는 답을 듣게 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을 자신이 해보고 싶어 사회복지학과를 왔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신입생들의 모습이 예쁘지만 뭔가 부족한 듯한 허전함을 느낀다. 졸업할 때까지 '주는 마음'이 아닌 '나눔의 마음'을 가져 볼 것을, 그리고 학과활동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해 볼 것을 부탁하며 자리를 마무리한다.

조금씩 나누는 마음으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 기대

자원봉사활동은 기쁨과 보람을 가지게 하고 자아를 확립하고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이기주의적 경향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며 다른 사람과의 협동, 자기 책임의 발견과 수행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은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이타주의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인간성 회복은 개인의 성숙과 함께 사회에 대한 인식을 보다 넓히고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틀이다.

이러한 자원봉사의 의미와 '콩 한 톨도 나누는'는 속담을 되새기며 남는 여분의 것이 아닌 작은 것이지만 조금씩 나누는 마음으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본다. 